

외래어 요소가 포함된 단어 형성 연구

이 광 호 *

1. 서론

해방 이후 서구와의 접촉이 잦아지면서 상당히 많은 외래어 요소가 국어에 차용¹⁾되어 쓰이기 시작하였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국어 어휘 체계 내의 상당 부분을 영어계 외래어 요소가 차지하게 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들 외래어 요소 중 많은 경우는 국어의 형태소들과 결합하여 단어를 형성한다. 국어의 형태소들과 외래어 요소가 결합하여 형성되는 단어는 거의 대부분 현대에 생겨난 신어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이러한 외래어 요소가 국어 안으로 편입될 때 어떤 특성을 보이면서 국어의 단어 형성에 참여하는지를 밝히고 이를 통하여 국어 체계 내에서 외래어 요소들이 가지는 전체적인 특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외래어와 외국어는 분명 국어 어휘 체계 내에서 구별되어야 할 대상이지만

* 1998년 2월 학사과정 졸업 예정

1) 해방 이전에도 신문명 관련 어휘가 중국, 일본을 통해서 많이 들어 왔고 고려 후기에는 몽고어로부터도 차용이 있었다. 중국어로부터의 차용은 물론 그 이전부터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양자를 구별하지 않는 태도를 취한다. 외래어와 외국어의 구별은 이질성에 대한 언중의 인식 정도에 근거하는 것인데, 단어 형성에 있어서는 그들이 그 이질성의 정도에 관계 없이 동일한 행동 유형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국어의 어휘 체계가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그리고 차용 외국어로 이루어져 있다고 파악한다.²⁾ 영어 학습이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어서 일상 생활에서 외래어라고 하기 어려운 외국어가 많이 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목의 외래어 요소는 한자어를 포함하지 않은 영어계 외래어와 외국어를 모두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외래적 요소라고 할 경우에는 한자어도 넓은 의미로 보아서 외래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한자어와 영어계 외래어와 외국어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국어 어휘 체계 안에서 외래어적인 성격을 가진 요소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한자어이다. 그래서 한자어의 단어 형성과 한자어의 형태론적인 연구는 많이 있지만 영어계 외래어 요소에 대한 형태론적인 연구는 매우 드물다. 그러나 영어계 외래어 요소와 한자어는 국어 안에서 이질적인 요소라는 공통 분모를 지니고 있으므로 이 둘은 형태적 특성과 단어 형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성들의 많은 부분을 공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점에 유의하여 한자어 단어 형성법과의 비교 대조를 통해 단어 형성에 있어서 영어계 외래어 요소가 한자어와 공유하는 특성과 독자적으로 갖는 특성을 관찰하고 설명하려고 한다.

이를 위하여 2장에서는 국어의 단어 형성 방식에 대하여 순수 고유어의 경우와 외래어 요소의 경우를 대략적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외래어 요소가 단어 형성에 참여할 때 고유어의 경우와 다른 단어 형성 방식과 결합 특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3장에서는 외래어 요소를 어기로 한 단어 형성을 살펴보는데 3.1.에서는 외래어 요소가 국어에서 어기 역할을 할 때 갖는 특성을 관찰하고 3.2.에서는 외래어 요소를 어기로 하는 파생, 3.3.에서는 외래어 요소를 어기로 한 합성을 살핀다. 3.4.에서는 3.3.까지 살핀 방법 이외의, 고유어의 단어 형성 방법에서는 볼 수 없는 방법으로 생성되는 단어를 살펴는데, 3.4.1.에서는

2) 심재기(1989)에서는 국어의 어휘 체계를 고유어, 한자어, 외국어로 구분하였다.

동의 중복을 통한 단어 형성을 살피고 3.4.2.에서는 절단에 의한 단어 형성을 살핀다. 3.5.에서는 3.4.까지의 논의를 종합하고 일반화하여서 외래어 요소를 어기로 한 단어 형성의 특성을 정리한다. 4장에서는 외래어 요소가 접사로 기능하는 단어 형성을 다룬다.

2. 국어의 단어 형성 방식

단어가 이루어지는 방법은 형태소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형태소는 단어 형성시의 역할에 따라서 어기와 접사³⁾로 나누어진다. 어기는 단어 형성시 그 중심을 이루는 실질적 의미를 가진 형태소이고 접사는 단어 전체의 중심부는 되지 못하고 의미 첨가나 문법적인 기능을 주로 담당하는 형태소이다. 국어에서는 이러한 어기와 접사들 간의 상호 결합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단어가 생성된다.

단어 형성은 크게 파생과 합성으로 나눌 수 있다. 파생은 크게 접사에 의한 파생과 접사에 의하지 않는 파생으로 구분할 수 있고, 전자가 다시 접두사에 의한 파생과 접미사에 의한 파생으로 후자는 내적 변화에 의한 파생과 영변화에 의한 파생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합성이란 두 개 이상의 어기나 어기보다 큰 언어 형식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형성시키는 절차를 말한다. 그리고 그 결합 양상에 따라서 합성은 구와 같은 방식을 보이면 통사적 합성, 그렇지 않으면 비통사적 합성으로 구분된다. 위의 파생과 합성의 단어 형성 방식들은 거의 고유어가 어기와 접사로 쓰였을 때의 단어 형성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외래어 요소들이 관여하는 국어의 단어 형성에 있어서는 고유어의 경우와 같은 방식도 나타나지만 다른 방식도 관찰된다. 외래어 요소가 단어 형성에 참여할 때에도 기본적으로는 파생과 합성을 통해서 단어가 형성되는데 파생의 경우 접사에 의한 파생만이 관찰되고 영변화에 의한 파생과 내적 변화에 의한 파생은 나타나

3) 본 연구에서 어기, 어근, 어간, 접사의 개념은 이익섭(1975)를 따른다.

지 않으며 합성의 경우에도 주로 통사적 합성이 관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어기나 접사가 고유어가 아닌 경우에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단어 형성 방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동의 중복과 절단이 관찰된다. 국어의 단어 형성 방식에서 고유어끼리의 결합에서는 동의 중복 현상이 관찰되지 않지만 한자어가 국어 어휘 체계 내에서 쓰일 때 동의 중복 현상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며 이는 형태적 구성의 단어 차원과 통사적 구성인 구 차원 모두에서 관찰된다.

(1) 단어 차원

아침朝飯, 속內衣, 藥水물, 落水물, 새新郎, 洋屋집, 菊花꽃, 當舖, 驛前앞.

(2) 구 차원

미리 豫習하다, 늙은 老人, 빈 空間, 어린 少年, 젊은 青年, 들로 兩分하다, 배우는 學生⁴⁾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외래어 요소를 어기로 하는 단어 형성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런 동의 중복 현상을 통해서 3.4.에서는 국어 어휘 체계 내에서 외래어 요소가 단어 형성에 참여할 때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본다.

고유어에서는 그 예가 흔하지 않으나 한자어의 단어 형성에 있어서는 절단(clipping)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⁵⁾ 이는 한자어 하나 하나가 국어 어휘 체계 안에서 독립된 형태소의 자격⁶⁾을 획득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절단 현상에 있어서는 의미 획득으로 인한 형태소 자격의 획득 또는 그 획득의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데, 차용된 외래어 요소의 부분들이 특정 의미를 획득해서 형태소 자격을 얻거나 또는 그 과정에 있을 때 이들이 절단을 통하여 국어의 단어 형성에 참여하는 것이 관찰된다. 그런데 외래어 요소가 절단을 통해서 단어 형성에 참여할 때는 한자어의 절단 현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4) 예는 노명희(1990:32) 참조

5) 불(고기) 白(飯): 불白, 비(빔) 冷(麵):비냉, 서(울지역) 總(학생회) 聯(습): 서총련
위의 예는 고유어가 절단되어 단어 형성에 참가하는 것을 보여 주는 듯하지만 고유어와 한자어의 혼성어인 경우이고 순수 고유어의 경우에는 절단 현상이 쉽게 찾아지지 않는다.

6) 김영석·이상억(1992:45) "특히 한자어는 1음절 1형태소의 한자 특유의 구성 방식이 아직도 국어 조어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생산적이므로 중요하다."

는 3.4.2.에서 자세히 살핀다. 다음은 한자어에서 주로 관찰되는 절단의 예이다.

(3) 大韓 民國→韓國, 韓國 電力→韓電, 韓國 銀行→韓銀, 勞動 組合→勞組⁷⁾

3. 외래어 요소를 어기로 한 단어 형성

3.1. 외래어 요소의 어기로서의 특성

이익섭(1975)에 따른 어근·어간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어근: 어느 경우에도 굴절 접사와 직접 결합될 수 없으며 또한 동시에 자립 형식도 아닌 단어의 중심부

어간: 굴절 접사와 직접 결합될 수 있거나 아니면 단독으로 단어가 될 수 있는 단어의 중심부

이러한 개념 규정을 따라서 차용된 외래어 요소가 국어 어휘 체계 내에서 어떤 자격을 가지면서 단어 형성에 참여하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이들 중 원어에서는 어간의 자격을 갖지만 국어 어휘 체계 안에서는 어근의 자격만을 가지면서 단어 형성에 참여하는 부류가 있다.

(4) 어근으로서의 외래어 요소 어기

심플하다, 컬러풀하다, 비주얼하다, 와일드하다, 비비드하다, 레이어드하다, 패셔너블하다, 글래머러스하다, 보이시하다, 이미지업하다, 에너제틱하다, 파워풀하다, 로맨틱하다, 타이트하다, 터프하다, 언밸런스하다, 오버라이드하다, 클로즈업하다(되다), 매칭되다...

이들은 주로 영어의 형용사로서 영어에서는 자립적인 어간으로 쓰이는 예들

7) 예는 김규철(1980:30).

이지만 영어와 국어의 언어 체계상의 이질성으로 인해서 국어의 어휘 체계 안에서 비자립적인 어근 자격밖에는 갖지 못한다. 그래서 외국어를 차용하여 국어 어휘로 변화시키는 기제인 ‘-하-’가 결합되어야 어간으로 기능하게 된다. 이것은 한자어 어근도 마찬가지이다. 다음 예는 차용 어근들의 공통 특질을 보여 준다.⁹⁾

한자어 어근: 貴重, 귀중하다, 귀중도 하다, 귀중은 하다.

: 確實, 확실하다, 확실도 하다, 확실은 하다.

영어계 어근: 컬러풀(colorful), 컬러풀하다, 컬러풀도 하다, 컬러풀은 하다.

기존의 논의들에서 한자어는 중국어에서는 어간의 자격을 갖지만 국어의 일원으로는 어근의 자격밖에 갖지 못하고, 이 경우에 고유어 접사 ‘-하-’가 결합할 수 있으며 또한 어근과 ‘-하-’사이에 특수 조사가 개입될 수 있음이 언급되었는데 이 점은 영어계 외래어 요소 어근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된다. 그런데 이것은 고유어 어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¹⁰⁾

(6) 어간¹¹⁾으로서의 외래어 요소 어기

배팅하다, 빅히트하다(치다), 리메이크하다, 트리트먼트하다, 헛스왕하다, 유니섹스

8) 노명희(1990:36).

9) 본 연구에서는 한자어와 외래어 요소가 단어 형성면에서 보여 주는 공통점을 외래적 요소가 국어 어휘 체계에 완전히 동화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파악했는데, 논문 중간 발표회장에서(1997.12.16) 심재기, 송기중 선생님께서 이 부분에 대하여 원어에서 형용사나 명사로 기능하는 외래적 요소들이 국어 어휘 체계로 명사성 의존 형식의 자격을 가지면서 편입된다고 보는 것이 이러한 현상을 일반화하기 더 쉽다고 지적해 주셨다. 그 예로 ‘예쁘다’와 ‘예쁘기도 하다’를 들어 주셨는데 더 넓은 시각에서 현상을 바라보아야함을 배웠고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를 드린다.

10) 고유어 어근 ‘튼튼’: 튼튼하다, 튼튼도 하다, 튼튼은 하다

11) 어간이라는 개념은 원래 굴절 현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필요하게 되는데 우리말에서의 체언은 인국어 체언과는 달리 굴절하지 않는 불변화사로 볼 수 있으므로 구태여 어간이라는 개념을 쓸 필요가 없다. 제시된 외래어 요소의 경우도 국어에서 체언으로 쓰이는 예들이므로 굴절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어간 개념이 크게 가치를 갖지 못하지만 다만 편의상으로 어간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하다, 통런하다, 코디하다, 컴백하다, 킥하다, 슛하다, 아르바이트하다, 더블캐스팅하다(되다), 매칭되다

어간으로서의 외래어 요소 어기는 거의 대부분 명사 차용어로서 고유어 명사와 동일한 행동 양상을 국어에서 보여준다. 외래어 요소 어근과는 달리 외국어를 차용하여 고유어 체계 내에서 국어 어휘로 변화시키는 기제인 ‘-하-’와의 결합뿐만이 아니라 모든 조사와의 결합도 자유롭다. 외래어 요소 어기로서의 특별한 특징은 관찰되지 않는다.

3.2. 외래어 요소를 어기로 한 파생

3.2.1. 고유어 접사류와 결합하는 경우

(7) 접두사

- 맞-: 맞트레이드(하다), 맞카드, 맞드라이브
- 헛-: 헛스윙(하다),
- 개-: 개품

일반언어학적인 면에서 볼 때 접두사의 수효는 접미사의 수효보다 더 적고 국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위에서 제시한 것 이외에도 고유어 접두사가 더 많이 있지만 외래어 요소어기와 생산적으로 결합하는 예들은 위의 예들이 거의 전부이다. 그런데 그 공통점은 이들 모두 공시적 생산성이 상당히 인정되는 접두사라는 점이며¹²⁾ 이들은 또한 한자어 어기와도 매우 생산적으로 결합한다는 것이다.¹³⁾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국어에서 고유어와의 결합이 생산적인 접두사만이 한자어 어기와도 결합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외래어 요소 어기와도 결합한다는 점이다. 즉, 고유어 접두사의 경우에는 어기와 접사의 출신 성분에 따라 그

12) 맞담배, 맞장구, 맞바둑, 맞불, 맞대꾸, 맞싸움, 맞씨름, 맞바느질, 헛방망이질, 헛손질, 헛걸음, 헛손질, 헛기침, 헛물, 헛배, 헛소리, 헛웃음, 헛일, 개살구, 개나리...

13) 맞상대, 맞적수, 맞결, 맞혼인, 헛지식, 헛고생, 헛공론, 헛수고...

결합 여부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결합의 여부는 접두사의 생산성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8) 접미사

- 장이: 컴퓨터장이, 솟장이
- 꾼: 포커꾼
- 질: 펌프질, 포크질
- 하: 어필하다, 빅히트하다, 배팅하다, 리메이크하다, 헛스윙하다, 유니섹스하다, 컬러풀하다, 시니컬하다, 아카데미하다, 센세이셔널하다
- 답-14): 쇼핑다운 쇼핑, 프로다운 근성, 퓨전재즈다운 음악

위에서 언급한 접미사들도 공식적 생산성이 상당히 인정되는 예들이며 한자어와도 상당한 생산성을 가지고 결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¹⁵⁾ 국어에 공식적으로 생산성이 있는 파생 접미사들이 상당수 있지만 외래어 요소와 생산적으로 결합되는 예가 그리 많지 않은 것은 파생접미사는 특정 어기에만 붙을 수 있다는 파생 접미사 특유의 결합 제약 때문이다. 국어에서 명사를 파생시키는 접사 '-이', '-음', '-기', '-개'와 부사를 파생시키는 접사 '-이' 등은 단어 형성에 있어서 상당한 생산성이 있지만 외래어 요소와는 결합하지 못한다. 이 접사들은 국어 용언의 어간에 직접 결합되는 것들인데, 외래어 요소 중에서 그 자체로써 국어에서 용언 어간으로 기능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이 접사들이 외래어 어기와 결합되지 않는 것은 외래어들의 특성과 관련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고유어 접미사도 접두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결합 어기의 출신 성분과는 상관없이 접미사 자신의 생산성 여부에 따라 그 결합의 여부가 좌우되며 생산성이 높은 접미사는 고유어, 한자어와 외래어 요소의 어기를 가리지 않는다.

3.2.2. 한자어 접사류¹⁶⁾와 결합하는 경우

14) 김창섭(1994): 구차원에도 붙을 수 있는 '-답'로서의 '-답'으로 단어 형성의 차원은 아니다.

15) 욕장이, 대서장이, 겁장이, 고집장이, 무식장이, 투기꾼, 학자답다...

16) 한자어 접사류라고 칭한 이유는 한자어 접사로 분류되는 예들 가운데는 '-감,-촌' 등 처럼 적절한 문맥 속에서는 단어로 쓰일 수 있는 단어 형성 전용 요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자어 접사류는 상당한 생산성을 가지고 새로운 단어를 형성시키지만 한자어 어기를 제외한 고유어 어기에는 거의 그 결합이 불가능하다.¹⁷⁾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고유어 어기들은 한자어 접사와의 결합이 극히 제약되지만 외래어 요소 어기는 한자어 어기와 마찬가지로 한자어 접사와 매우 생산적으로 결합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우리는 한자어 어기와 외래어 요소 어기간의 공통 특질을 포착할 수 있다. 다음의 예는 고유어 어기가 한자어 접사와 결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 (9) 생(生):- 생로알제리, 생크림, *생물(水), ?생고기(날고기), ?생밤(날밤)…¹⁸⁾
 폐(廢):- 폐오일, 페드럼통, 페타이어, *페그릇, *페바퀴
 -화(化): 체화(體化), *몸화
 -부(部): 심장부, *염통부

다음의 예들은 외래어 요소 어기들이 한자어 접사들과 생산적으로 결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 | | |
|--|----------------------------------|
| (10) 한자어 접미사와의 결합 | (11) 한자어 접두사와의 결합 ¹⁹⁾ |
| -광 ²⁰⁾ : 바그너광, 인터넷광, 스피드광, 매모광,
시뮬레이션광, 게임광, 퍼즐광, 채팅광, 골프광 | 강-: 강숫
생- : 생로알제리, 생크림 |
| -계: 디자인계, 패션계, 록계, 개그계, | 주-: 주메뉴, 주테마 |

“왜 저 친구 그 분야에서 하는 일에 아직도 감도 못 잡고 있나?”
 “촌에서 와서 그래요”

- 17) 서정수(1994).
 18) ‘생(生)-’의 경우에는 고유어 어기들과 결합하는 예들도 존재한다. 거의 ‘날-’의 자리를 대신해서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는 ‘생(生)-’이라는 한자어 접사의 개별적 속성이 지 한자어 접사 전체의 범주적 속성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19) 어두 한자가 접두사와 관형사 중 어디에 속하는지 확연히 가르기는 어렵지만 관형사로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첫째로 자립성의 문제에 있어서 어두 한자어의 경우에는 자립성이 인정될 수 없다. 둘째로 어두 한자어들은 관형사와는 달리 그 분포가 한정되어 있다. 즉, 관형사라기 보다는 파생접사가 특유하게 가지는 결합에 대한 선택 제약이 어두 한자어에도 존재하는 것이다.
 20) 고유어와 결합하는 예도 드물지만 있다. 예) 낚시광…

- 가톨릭계, 엠시계, 퓨전재즈계
 -가: 쇼핑가, 오피스가, 패션가
 -형(21): 슬립형
 -력: 브랜드력, 커버력, 디자인력, 점프력, 슈팅력
 -성: 해프닝성, 코미디성, 알코올성, 스타성,
 포르노그라피성, 캠페인성, 패션성, 센터링성
 -주의: 누드주의, 엘리트주의
 -족: 댄디족, 우모족, 실버족, 오토바이족, 나토족,
 데이트족, 검프족, 지피족, 고스톱족, 스쿠터족,
 선택족, 핑크족, 오렌지족, 미시족, 스킨헤드족,
 -촌: 오피스텔촌, 아파트촌, 텍사스촌
 -장: 헬스장, 골프장, 서바이벌장
 -비: 레슨비, 랜딩비,
 -료: 모델료, 아이디어료
 -난: 에너지난
 -적: 미스터리적, 카리스마적, 몽골리언적, 엘리트적,
 기브엔테이크적, 반페미니스트적,
 -화: 로컬화, 네트워크화, 디지털화, 텔런트화, 소프트화,
 데이터베이스화, 헤게모니화, 이벤트화, 컴퓨터화,
 체인화, 베드타운화, 팬시화, 킬러화, 시디롬화
 -감: 리듬감, 볼륨감
 -촌: 오피스텔촌, 아파트촌, 텍사스촌
- 저-: 저칼로리
 다-: 다채널
 광-: 광케이블
 무-: 무세일
 페-: 페오일, 페드럼통
 비-: 비시즌

이는 한자어 접사류가 오랜 기간동안 국어 어휘 체계 내에서 존속해 왔지만 자신의 외래적 속성을 잃지 않고 유지해 왔기 때문에 고유어 어기는 피하면서, 출신 성분은 물론 다르지만 그 속성 면에서 동일한 영어계 외래어 요소 어기와 생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시 말하자면 외래적 속성을 지닌 요소들, 즉 영어계 외래어 요소 어기와 한자어 접사, 그리고 당연한 경우이지만 한자어 어기와 한자어 접사류의 결합이 매우 생산적으로 관찰된다. 그리고 이는 영어에서 접미사 -ity가 [+Latinate] 자질을 가진 라틴계 어기에만 결합하고 [-Latinate] 자질의 단어에는 결합하지 않

21) 고유어와 결합하는 예도 드물지만 있다. 예) 달걀형...

는 현상과 동귀의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영어에서는 이러한 어기와 접사의 결합에 있어서의 제약 현상을 [\pm Latinate] 또는 [\pm Native]라는 추상적 형태 자질을 설정하여 설명했다. 그런데 국어의 경우에도 이것과 평행하게 어기와 접사의 출신 성분에 따라 결합에 제약이 나타나는 현상이 관찰되기 때문에 추상적 형태 자질의 설정을 통한 어기와 접사간의 결합 여부를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²²⁾

따라서 국어에서도 [\pm Foreign]의 자질²³⁾을 설정하면 외래어 요소 어기와 한자어 접사류들의 결합의 높은 생산성을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외래적 요소들 간의 자질 세분 문제에 있어서, 한자어 접사는 고유어와만 결합하지 않을 뿐 한자어 어기와 외래어 요소 어기 모두와 결합하기 때문에 [\pm Chinese] 자질의 설정은 무의미²⁴⁾하다. 그래서 외래적 요소들 사이의 세부적 자질 구분은 필요 없고 다만 [+Foreign] 자질을 한자어 형태소들과 외래어 요소 어기들에 부여함으로써 어기와 접사의 결합 여부를 설명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출신 성분적인 제약 현상은 [+Foreign] 자질을 가진 외래적 접사에만 한정되는 것이고 [-Foreign] 자질을 지닌 고유어 접사의 경우에는 3.2.1.에서 살펴본 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Foreign]성의 고유어 접사들이 외래적 어기들과의 결합 여부는 자질상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공시적 생산성 여부에 달려 있다. 이것은 영어에서 접사 '-ness'가 [+Latinate]와 [+Native]를 구별하지 않고 양자

22) 국어의 단어 형성에 있어서의 추상적 형태 자질에 대한 논의는 송철의(1988)에 그 설정 가능성이 언급되어 있다. 그리고 김규철(1980)에서는 추상적 형태 자질이라는 언급은 없지만 한자어에 [+sino]자질을 설정하여 고유어의 단어 형성에는 보이지 않는 V+O 구조, 그리고 고유어와 차이를 보이는 한자어의 음운 현상의 특이점을 설명했다.

23) [+Foreign]자질은 [-Native]자질과 동일하다. 편의상 본 연구에서는 [Foreign] 자질만 사용한다.

24) 한자어와 외래어 요소는 단어 형성시 그 행동 양상이 거의 비슷해서 양자를 구별하는 자질의 설정은 무의미하다. 한자어 어기와 외래어 요소 어기가 접사와 결합할 때, 한자어 접사는 전자와 후자 모두와 잘 결합하고 고유어 접사의 경우에도 그 접사가 생산성이 있다면 양자를 가리지 않고 결합해서 그 차이점을 찾기 어렵다.(\Rightarrow 3.2.참조) 합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의 모습을 보인다.(\Rightarrow 3.3.참조) 동의 중복에 의한 단어 형성에 있어서도 양 어기들은 동일한 행동 유형을 보인다.(\Rightarrow 3.4.1.참조) 절단의 경우에도 내적 실현 양상은 다르지만 그 원인은 동일하며 그 실현 양상의 차이를 추상적 형태 자질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는 없다.(\Rightarrow 3.4.2.참조)

모두에 결합되는 현상과 평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외래적 요소들에 대한 추상적 형태 자질의 부여는 이들이 국어 안에서 특수한 형태론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반영해 주는 것이다.

그런데 한자어 접사 중에서도 '-적', '-화'의 경우에는 그 생산성이 매우 높아서 한자어와 외래어 요소 어기 이외에 고유어 어기에도 부분적으로 자신의 결합 영역을 확대시켜 나가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²⁵⁾ 다음은 그 예인데 국어의 모든 화자들이 이 예들이 적격하다고 인정하지는 않는 듯하다.

- (12) -적: 우리적²⁶⁾, 마음적,
-화: 우리화하다.

3.3. 외래어 요소를 어기로 한 합성

외래어 요소를 어기로 하는 합성에서는 대부분이 통사적 합성의 예를 보인다. 그 의미 관계에 따라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3) 대등관계
고스톱

- (14) 종속관계

- a. 주성분이 국어인 경우

홈경기, 어웨이경기, 가솔린 기관, 컵받침, 인바운드 관광, 핸드백 지기, 체크 세대, 칵테일 소주, 수퍼군, 빌딩숲, 마라톤 협상, 셔틀기차, 메달밭, 벌크화물, 홈런포, 인턴 사원, 커리어 여성, 리필제품, 가스통, 릴낚시, 골프공, 소프트 산업, 가솔린 기관, 패키지 여행, 스리스트라이크 아웃범룡다리, 솟다리, 유니폼 시원, X세대, Y세대

- b. 주성분이 외래어 요소인 경우

주루 플레이, 단풍 트래킹, 합동 콘서트, 보내기 번트, 강숫, 긴급 메세지, 시내버

25) 특히 '-적'의 경우에는 그 지나친 생산성을 가지면서 접미사의 분포 제약을 무시하여 파생 접사로서의 위치가 의심스러운 면이 있다.

26) 조지훈(1978:216), 《韓國文化史序說》, <우리적 전통>.

스, 온실가스, 펜팔친구, 실내스키, 야구팬, 축구팬, 전자렌지, 만루홈런, 등심스테이크, 휴대폰, 공격피칭, 폭포랜드, 머리숱, 가격 카르텔, 블록랜드, 골수팬, 극성팬, 가족호텔, 청춘스타, 버락스타, 이념서클, 지하서클, 재테크, 시테크, 공테크, 단독 플레이, 법조타운, 레저타운, 복합장르, 액정룸, 대박프로, 무인감시카메라, 경쟁라운드, 투자라운드, 그린라운드, 주메뉴, 다채널, 성클리닉, 주테마, 극세로봇, 뒤쿠션, 수납박스, 가상섹스, 영화매니아, 영상미디어, 생테네트워크, 개호텔, 꼭지티, 배짱티, 종파티, 물탱크, 경보시스템, 종이킵, 가속페달, 전화카드, 반짝스타, 깜짝스타, 깜짝쇼, 몰래카메라, 바로카드, 바로바로코너, 몰래바이트...

외래어 요소를 어기로 가지면서 대등 관계의 합성어를 이루는 예는 쉽게 관찰되지 않는다. 종속 관계 합성의 경우에는 주성분이 외래어 요소인 경우도 관찰되고 또 주성분이 고유어 또는 한자어인 경우도 관찰된다. 그런데 대부분 고유어 합성어의 예에서 관찰할 수 있는 예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외래어 요소가 어기일 경우에 한하여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도 존재하는데 다음이 바로 그 예들이다. 이러한 단어는 앞으로 계속 생겨날 것으로 예상된다.

- (15) 반짝스타, 깜짝스타, 깜짝쇼, 몰래카메라, 바로카드, 바로바로코너, 몰래바이트, 바로토스트, 반짝세일...

고유어 합성어의 경우에는 부사와 명사가 종속적으로 결합되어 수식 관계를 이루면서 합성명사를 이루는 예가 거의 없다.²⁷⁾ 그러나 외래어 요소가 어기로 참가할 경우에는 그 양상이 자못 생산적이다.²⁸⁾ 그리고 이런 현상은 한자어의 경우에도 관찰된다.

27) 김영석, 이상억(1992:123)에는 AdN 유형의 합성어로 '부슬비, 얼룩말, 깍소리, 너털 웃음, 으름 달걀, 맛대면'을 제시했는데 이 예들은 (15)의 예들과는 성격이 다르다. (15)의 예들처럼 생산성도 가지지 못하고 '부슬'의 경우에는 중첩이 되어야 부사로 기능하는데 그 자체로는 부사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고 '얼룩', '너털', '어스름' 등도 문장 안에서 '반짝', '깜짝', '몰래', '바로' 처럼 부사로 기능하는지 의심스럽다. 그러나 최근에 생긴 AdN 유형의 고유어 합성어로 매우 드문 예지만 '따로 국밥'이 존재한다.

28) (15)에서 제시된 예들이 특이하기는 하지만 언중의 뇌리에 각인시키기 위한 특이성을 목적으로 조여진 것이어서 일시성만을 가질 뿐 정착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정적 인 연구 자료로서의 가치는 재고해 보아야함을 송기중 선생님께서 지적해 주셨다.

(16) 금융 실명제 감작 시행, 마이클 잭슨 감작 방한

그러나 한자어에서 이런 현상은 합성 명사의 경우가 아니라 단지 부사가 명사를 수식해 주는 예를 보여 주는데 그치는 것으로서 (15)에서 나타나는 예들과는 그 성격이 같지 않다. 그리고 사용될 수 있는 영역이 제한 되어 있다.²⁹⁾ 따라서 이는 국어에서 외래어 요소가 합성어의 어기로 작용할 때 일어나는 독특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3.4. 그 밖의 경우

3.4.1. 동의 중복에 의한 단어 형성

국어에서 동의 중복 현상은 한자어 어기가 단어 형성에 참여할 때 특징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지적되었다.³⁰⁾ 그리고 그 현상은 단어 차원과 구 차원 모두에서 나타나며 다음 예는 그것을 동시에 보여 준다.

(17) 똑똑 떨어지는 落水물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한자어가 아닌 영어계 외래어 요소 어기가 단어 형성에 참여할 때도 단어 차원과 구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관찰된다.

(18) 단어 차원

어기가 어근인 예: 드럼통, 페트병, 워셔기, 미그기, 하드보드지, 머그잔(컵), 테스터기, 이지체크기, 레커차, F16기, 토스터기, 타블로이드판, 록 음악

어기가 어간인 예: 네트워크망, 스티감, 볼륨감, 믹서기, 열감지센서³¹⁾, 키보드판,

29) 한자어의 경우 이러한 예를 만들어 보자면 '반짝유행', '반짝경기' 등이 있지만 외래어 요소의 경우처럼 활발하지도 않고 자료 조사의 미흡도 그 원인일 수 있겠지만 문중되지도 않는다.

30) 노명희(1990:22).

폰드플, 파일철, 쥘차

(19) 구 차원

열을 감지하는 센서, final 최종 마무리, 히트를 치다.

외래어 요소 어기의 경우 동의 중복 현상은 어기의 자립성 여부와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다. 한자어의 경우에는 동의 중복이 문체적인 차이를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지칭 대상도 동일할 뿐 아니라 특별한 경우³²⁾를 제외한다면 단어의 자립성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즉, 필수적 현상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런데 외래어 요소 어기 중에는 단어의 자립성 획득에 동의 중복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예들이 존재한다. 위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기가 의존 형식인 어근의 경우에는 자립성 획득을 위해 동의 중복 현상이 필수적으로 요청되지만 자립 형식 어간인 경우에는 그 의미를 확실히 해 주기 위한 수단으로서 수의적으로 발생할 뿐이다.

이는 한자어와 외래어 요소가 모두 외래적 요소이기는 하지만 외래어 요소가 한자어보다 더 이질적인 요소로서 국어 어휘 체계 내에 완전히 동화되지 못하여 국어 요소와 결합하여 이질성을 약화시켜야만 자립성을 획득하여 국어의 문장 속에 쓰일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한자어가 어기로 쓰인 동의 중복 현상에서 첨가되는 동의 중복적 요소는 대부분 고유어인데 외래어 요소가 어기로 쓰인 경우에는 동의 중복으로 첨가되는 요소가 대부분 한자어라는 점이다. 이는 3.2.2.에서 살펴본 대로 외래어 요소 어기는 고유어 접사와의 결합에는 배타적이지만 한

31) 대부분의 경우 동의 중복적 요소는 뒤에 첨가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열감지센서'의 경우에는 앞에 첨가되었다. 한자어의 경우에는 이러한 예가 몇몇 나타난다.

'속內衣, 새新郎, 담墻'

32) 노명희(1990:22)

面刀칼,卓球공

이 예들은 지칭적 의미가 변한 예들이다. '면도칼'에서 '면도'는 면도하는 행위만을 나타내는 반면, '면도칼'은 '면도하는 도구인 칼'을 지칭하게 된다. '탁구공'에서도 '탁구'는 운동 경기의 한 종목을 의미하지만 '탁구공'은 '탁구 경기에 쓰이는 공'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동의중복 현상은 아니다.

자어 접사와는 생산적으로 결합하는 현상과 평행하다. 이를 통해 볼 때 동의 중복적 첨가 요소는 단어 형성에서 접사처럼 기능³³⁾하며 외래적 요소는 외래적 요소끼리 훨씬 더 잘 결합하는 경향성이 외래어 요소 어기와 한자어 접사의 경우에 이어서 또 다시 확인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3.4.2. 절단에 의한 단어 형성

한자어는 문자 하나 하나가 형태소의 자격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절단을 통한 단어 형성이 활발하다. 1음절 1형태소의 한자 특유의 구성 방식이 국어 조어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외래어 요소의 경우 원어에서는 몇 개의 형태소로 분석되든 간에 일단 수입된 이후에 우리말에서는 하나의 형태소로 취급되는 것이 정상이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 이유야 어찌 되었든 외래어 요소의 형태소 분석에 대한 변화가 생겨서 이것이 절단을 통한 단어 형성에 반영된다.³⁴⁾ 기존의 연구에서도 한자어에 이어 외래어 요소의 경우에도 절단을 통한 단어 형성이 일어남을 언급했는데 그 설명 과정 중에서 절단과 약어화를 구분하지 않고 다루고 있다.³⁵⁾

33) 동의 중복에서 첨가되는 요소가 접사적 성격을 갖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록음악'과 '열감지센서'의 경우에는 예외적인 모습을 보인다.

34) 절단을 통한 단어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형태소 분석의 문제는 외래어 요소의 경우 원어에 있어서의 형태소 분석과는 전혀 상관없이 일어나는 예가 많다. 그러나 이것은 외래어 요소 형태소에 대한 오분석이 아니다. 일단 차용되었으면 원어에서의 구조야 어찌되었든 국어 체계 내에서의 형태소 분석만이 우리에게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restaurant에서의 '-토랑', hotel에서의 '-텔', meeting에서의 '-팅' 등은 원어에서는 아무런 형태적 지위도 없는 단위들인데 국어 어휘 체계 안에서만 형태소로서의 지위를 부여 받았을 뿐이다.

35) 노명희(1997:318)

“그러나 이것을 모두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을 듯한데 ‘컴퓨터: 컴마울, 컴족, 컴시인, 컴친구, 컴소식’의 예는 단순히 형태소를 분석해 낸 것이라기보다 **약어화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컴마울’, ‘컴친구’ 등은 ‘컴퓨터’에서 첫음절을 따서 만든 약어화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약어화로 본다면 이제까지 주로 한자어에서 활발히 일어난다고 생각했던 절단 현상이 외래어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의 인용문에서는 ‘절단’과 ‘약어화’의 개념 구분이나 관계 등이 명시되지 않고 쓰여서 혼동의 여지가 있다. ‘-팅’과 ‘-텔’은 절단의 예로 파악한 것 같은데 ‘컴-’은 그것과는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절단과 약어화의 개념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절단이나 약어화 모두 온전한 단위의 부분을 따온다는 점에서는 동일하고 약어화의 기제로 절단이 사용될 수 있어서 그 개념이 확연히 구분되기 어려운 면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영어에서 흔히 보이는 IMF, I.B.R.D, W.H.O 등의 예처럼 일부분을 따오는데 따와지는 일부에 어떤 의미나 형태적 지위도 부여할 수 없는 경우를 약어화라고 하고, 절단은 그와는 반대로 절단되어 단어 형성에 쓰이는 부분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새로이 의미를 획득했거나 획득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 단위일 경우를 지칭한다. 다시 말하면 절단을 통한 단어 형성이 가능하려면 절단되어 단어 형성에 쓰이는 부분이 형태소 또는 준형태소로서 어떤 의미를 획득해야만 하는 것이다. 비슷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양자를 동일하게 보기에 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구분이 필요하다.

다음은 절단에 의해서 형성된 단어의 예들이다.³⁶⁾

(20) 레스토랑: 회토랑, 패스토랑 (패스트 푸드 음식점)

호텔: 휴게텔, 수면텔, 캡슐텔

미팅: 방팅, 소개팅, 뽀빠팅, 폰팅, 노예팅, 보험팅, 수영장팅, 컴팅

컴퓨터: 컴맹, 컴족, 컴마을, 컴친구, 컴소식, 컴시인, 컴팔, 컴팅, 수퍼컴

인터넷: 넷맹³⁷⁾

기타: 야강족, 몰래마이트, 샵마(shop master),니코덤, 헬기

‘레스토랑’에서 절단된 ‘-토랑’은 ‘보통보다 격이 높은 음식점’ 정도의 뜻을 획득하는 과정에 있거나 또는 ‘-토랑’이 화자들에게 ‘레스토랑’을 연상시켜서 형태소 자격을 획득해 나가는 과정이어서 먹는 음식과 결합하여 ‘회토랑’과 ‘패스토랑’을 형성했다. ‘호텔’에서 절단된 ‘-텔’은 ‘휴식 공간으로서의 숙소’ 정도의 뜻을

른 약어화로 파악한 후 다시 후에 절단 현상으로 파악해서 혼동을 막기 위해서는 개념상의 정리가 필요하다.

36) 절단을 통해 형성된 단어들을 관찰할 때 한국어 화자들이 어두 부분을 절단하는 경향은 드물기 때문에 (‘컴-’의 경우) 일본에서 절단되어 수입된 예가 어떤 것인지를 잘 분별할 필요가 있음을 임흥빈 선생님께서 지적해 주셨다.

37) 예는 노명희(1997:318).

획득하고 그 속소의 용도와 모양을 나타내는 말과 결합하여 ‘휴게텔’, ‘수면텔’, ‘캡슐텔’ 등을 형성했다. ‘미팅’에서 절단된 ‘-팅’은 ‘비공식적인 남녀의 만남’ 정도의 뜻을 획득해서 만남의 절차와 방법을 나타내는 말과 결합했다. ‘컴-’도 영어에서는 그 상황을 모르겠으나 국어에서는 ‘컴퓨터와 관련된’ 정도의 뜻을 획득해서 ‘컴맹’, ‘컴족’, ‘컴시인’ 등의 단어를 형성하고 있다.

‘-토랑’의 경우에는 그 결합 예가 그렇게 생산적이지는 못하여 완전히 국어에서 형태소 자격을 획득했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텔’과 ‘-팅’ 그리고 ‘컴-’의 경우에는 그 결합의 생산성이 높아서 형태소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토랑’, ‘-텔’, ‘-팅’, ‘컴-’ 등이 절단을 통해서 단어 형성에 참여하지만 단어 형성상에서 형태적 지위가 동일하지 않다는 점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모두 여기에 참가되어 특정한 의미를 더해 주는 접사로서 기능하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토랑’과 ‘-텔’의 경우에는 단순 접사로만 기능한다. 그러나 ‘-팅’과 ‘컴-’의 경우에는 접사 이상의 특성을 보이면서 문장 안에 쓰이는 경우가 있다. “오늘은 또 무슨 텅이야?”의 경우는 접사가 아니라 명사로 사용된 경우여서 ‘-팅’을 단순히 접사로만 인식할 수만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컴맹’, ‘컴족’ 등의 경우에 ‘컴-’을 단순히 접사로 파악할 경우 접사끼리 결합하여 단어가 형성되는 이상한 결과가 초래된다.

이는 ‘컴’과 ‘팅’이 단어와 접사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생각된다. 즉, 단어형성 전용 요소³⁸⁾의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합성어의 내부에만 나타나서 단어 형성론적으로만 존재하며(‘컴’과 ‘팅’이 만들어 내는 합성어의 예 모두) 또 적절한 문맥이 확보되면 독립된 명사로서 문장 안에서 쓰이는 것이다.(‘팅’의 경우)

따라서 ‘컴’과 ‘팅’은 국어의 단어 형성에서 단순히 접사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단어 형성 전용 요소로 기능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국어의 단어 형성 전용 요소의 경우는 온전한 단어에서 파생 접사화해 나가는 것이 그 일반적인 방향인데 외래어 요소의 경우에는 그 반대의 양상을 보여 준다는 점이

38) 단어형성 전용 요소는 김창섭(1994)의 개념을 따른다.

특이하다.

기타의 예들 중 ‘야깡족’은 조깅(jogging)을 ‘조깡’(朝ging)으로 분석하여 밤에 운동 삼아 뛰는 사람들을 일컬어 ‘夜깡족’³⁹⁾으로 명명한 것이다. ‘몰래바이트’⁴⁰⁾는 ‘경기 침체로 인한 명퇴로 인해 직장인들이 동료 몰래 부업으로 하는 일’을 말하는데 ‘아르바이트’로부터 형성된 단어로 여기서 ‘-바이트’가 ‘부업으로 하는 일’ 정도의 의미를 획득했다고 할 수 있으나 위의 다른 예들처럼 다른 어기들과 생산적으로 결합하는 예를 보여 주지는 않아서 단정하기는 어렵다. ‘니코담’은 ‘니코틴’과 ‘-담’이 결합된 단어로 여기서 ‘-담’은 ‘condom’으로부터 나온 형태소로⁴¹⁾ ‘의도하지 않았던 어떤 것을 막는 장치’ 정도의 의미를 획득하여 국어의 단어 형성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인다.⁴²⁾

외래어 요소의 절단 현상은 조어법 차원에서 형태소 분석이 가능한 부분이 절단되어 단어 형성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한자어의 절단 현상과 매우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한자어의 절단은 접사로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국어의 단어 형성에 참여할 때 긴 단어를 대표할 수 있는 부분의 조합일 뿐이어서 어휘부에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외래어 요소의 경우에는 절단된 부분이 접사로 기능하면서 어휘부에 새 항목을 추가하면서 단어 형성에 참여한다. 이러한 절단 현상은 한자어와 외래어 요소가 그 내적 성질은 다르지만 형태소 자격을 획득했거나 그 획득 과정 중이면 절단을 통해 단어 형성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차용어로서 국어 어휘 체계 내에서 공통적으로 가지는 특성으로 파악할 수 있다.

39) 언어 유희의 일례로 보인다.

40) ‘몰래바이트’는 대학생 과외가 금지되어 있었던 5공 시절에 ‘몰래하는 과외’라는 의미로 처음 등장했다고 한다.

41) Condom은 이 피임 기구를 발명한 의사의 이름으로 고유 명사여서 여기서 사용된 ‘-dom’은 영어에서 아무런 형태소도 아니다.

42) 그런데 이러한 ‘-dom’에 대한 인식이 영어에서 ‘femidom’이라는 단어가 형성되는 것을 보면 국어에서만 아니라 영어에서도 관찰된다.

3.5. 외래어 요소를 어기로 한 단어 형성상의 특성

외래어 요소가 차용되어 국어에서 어기로 쓰일 때, 어근의 자격을 가지면서 쓰이는 예들도 있고 어간의 자격을 가지면서 쓰이는 예들이 있다. 어근의 자격을 지니는 예들은 한자어 어근들과 동일한 행동 양식을 보이며 단어 형성에 참여한다. 즉, 외래어 요소를 고유어화 해 주는 기제인 '-하-'와 결합하고 특수 조사와만 결합할 수 있다. 국어에서 어간의 자격을 가지는 외래어 요소 어기들은 주로 명사이기 때문에 국어의 일반 체언들과 동일한 행동 양식을 보여준다.

이러한 어기들은 국어의 접사류들과 결합하여 파생어를 형성하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고유어 접사들과의 결합은 활발하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고유어 접두·접미사가 국어 단어 형성 안에서 매우 높은 공시적 생산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접사들과 외래어 요소 어기 간의 결합이 이루어진다. 즉, 고유어 접사와 외래어 요소 어기 간의 결합의 여부는 고유어 접사의 생산성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고유어 접사들과는 달리 한자어 접사들과의 결합은 접두 파생과 접미 파생 모두에서 매우 생산적이다. 이는 외래어 요소 어기와 한자어가 국어의 어휘 체계 안에서 그 모국은 달리하지만 외래적 요소라는 본질적인 공통점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즉, 국어의 단어 형성에 있어서 한자어와 외래어 요소가 그 기원 언어가 달라서 서로 화합할 수 없는 이질성을 지닐 것 같지만 예상과는 달리 외래적 요소끼리 더 잘 결합하는 경향성을 보여줌으로써 양자를 [+Foreign]의 공통 자질로 파악할 수 있다.

외래어 요소를 어기로 한 합성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는 고유어에서 보이는 합성의 유형인 대등, 종속, 융합의 예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고유어의 합성에서는 드문 어근⁴³⁾ 또는 부사와 명사의 결합 예가 자못 생산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것은 고유어의 단어 형성에서도 관찰 가능한 경우인데 그렇지 않은 단어 형성 방식도 존재한다. 동의 중복과 절단에 의한 단어 형성 방식이 그 두 가지이다. 동의 중복에 의한 단어 형성은 한자어 조어법에서도 관찰되

43) 본연구에서는 어근/어간의 개념을 이익섭(1975)를 따른다.

는데 이는 외래적 요소가 국어의 단어 형성에 참여할 때 이질성의 약화와 자립성의 획득과 관계되는 공통 특질로 파악된다. 한자어와 외래어 요소 어기가 동의 중복을 통한 단어 형성에서 다른 점은 한자어의 경우에는 동의 중복이 단어 형성에 있어서 수의적으로 작용하지만 외래어 요소 어기 중 어근의 경우에 있어서는 필수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절단에 의한 단어 형성법은 차용된 외래어 요소가 원어에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간에 국어에서는 하나의 형태소로 파악해 왔던 종래의 의식에 변화가 있음을 반영해 주는 현상이다. 절단은 약어화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절단의 전제 조건은 의미 획득 또는 그 과정으로 인한 형태소 분석의 가능성이다. 즉, 차용된 외래어 요소의 일부가 국어에서 형태소 자격을 획득하거나 그 과정 중에 있으면 그 부분이 절단되어 국어의 단어 형성에 개입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절단되어 단어 형성에 쓰이는 부분이 접사나 단어 형성 전용 요소로 작용한다. 그런데 대부분 원어에서의 형태소 분석과는 무관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4. 외래어 요소가 접사로 기능하는 단어 형성

차용시에는 어휘적 의미를 가지는 어휘 형태소(lexical morpheme)가 차용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⁴⁴⁾이지만 그 일반성을 거스르는 예들도 관찰된다. 다음이 그 예들인데 일반성을 거스르는 접사 차용의 예들이지만 상당한 생산성을 가지고 단어 형성에 참여하는 예들도 있다.

(21) -틱(-tic): 유아틱, 학생틱, 공주틱...

-맨(-man): 삼성맨, 현대맨, 정보맨, 서울대맨, 광고맨, 호빵맨, 세균맨, 당구

44) 김규철(1980:5), Bynon(1977:217-232) 흔히 차용(loan, borrowing)이란 어휘면에 편중되어 있어서 기능어(functional word)나 문법면에서는 잘 차용이 안되는 것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맨, 요트맨

-라운드(round): 그린라운드, 환경라운드, 투자라운드, 경쟁라운드, 우루과이
라운드

풀-(full-): 풀가동(하다), 전후반을 풀로 뛰다.

'-틱(-tic)'의 경우 영어에서 'romantic, pessimistic, optimistic...' 등에서 나타나는데 여기서 't'까지가 어기의 일부이고 '-ic'가 접사여서 'tic'에는 아무런 형태적 지위도 부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데 국어에서는 접사로 기능하면서 단어 형성에 참여하고 있다. 이는 매우 특수한 예지만 신분이나 자격을 나타내는 국어 어기에 매우 생산적으로 결합하여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정도의 의미를 나타낸다. '-맨(-man)'의 경우 영어에서는 완전히 자립적인 단어이지만 국어에서는 거의 접사화되어서 '선행 요소의 특성을 지닌 사람 또는 선행 요소를 즐기는 사람' 등의 뜻을 나타낸다. '-라운드(-round)'의 경우는 그 예가 그리 풍부하지는 않지만 '어떤 경쟁의 장' 정도의 뜻을 획득하여 경쟁의 목표나 사안에 해당 하는 단어와 결합하여 단어를 형성시킨다. '풀-(full-)'은 영어에서 형용사로 쓰이는 자립 형식이지만 국어에서는 접사처럼 쓰인다. 다른 외래어 요소 형용사들이 국어에서 쓰일 경우 '외래어를 고유어화시켜 주는 기제'인 '-하다'의 도움을 받아서 국어의 단어 형성에 참여하는데 '풀-(full-)'의 경우에는 그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 결합의 예가 생산적이지는 않지만 접사로 파악하는 것이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 '전후반을 풀로 뛰다'의 경우에는 부사성 어미 '-로'와 연결되어 명사로 쓰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그 쓰임을 정확히 규정하기가 어렵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외래어 요소가 국어에서 어떤 모습으로 단어 형성에 참여하는지 살펴보았다. 외래어 요소들은 일반적 단어 형성법과 마찬가지로 어기로 쓰이는 예도 있고 접사로 쓰이는 예도 있다. 일반적으로 언어간 차용은 어휘 형태소

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접사 차용을 통한 단어 형성보다는 어기 차용을 통한 단어 형성이 활발하다.

외래어 요소를 어기로 한 단어 형성의 경우에 고유어 단어 형성법과 동일한 현상을 보이는 예들도 있지만 그 내부적 현상은 고유어 단어 형성법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경우가 존재한다. 한자어 단어 형성법에만 존재하는 동의 중복과 절단이 외래어 요소를 어기로 하는 단어 형성법에서 나타나지만 그 실현 양상은 달리 나타났다. 이로써 한자어와 외래어 요소가 국어 체계 내에서 외래적 요소로서의 범주적 공통성은 있지만 그 세부적인 모습에서는 행동 양상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외래어 요소를 접사로 차용한 단어 형성의 예에서는 외국어의 접사를 그대로 차용한 것이 아니라 외국어 형태소의 오분석의 예나 또는 외국어의 자립 형식이 국어에서는 접사로 쓰이는 예들을 볼 수 있다. 수입된 외래어 요소가 단어 형성에 참여하면서 보이는 독특한 특질은 외래적 요소가 국어 형태론에서 특이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이상에서 외래어 요소를 어기로 하는 단어 형성에 대하여 그 개략적인 특성을 살펴보았으나 우리의 일상 생활에 쓰이고 있는 수많은 외래어 요소들이 가지는 극히 일부만을 관찰해 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어느 시대의 언어이건 외래적 요소는 항시 있어왔음에 틀림없기 때문에 연구 대상에 대한 통시적인 접근과 함께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확실한 이론적 바탕 위에서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과제이다.

참고문헌

- 고영근(1989), 《국어형태론 연구》, 서울대 출판부.
 고영근, 남기심(1985), 《표준 국어 문법론》, 탑출판사.
 김계곤(1969), <현대국어 뒷가지 처리에 대한 관견>, 《한글》 144.
 _____(1970), <현대국어 꾸밈씨의 합성법>, 《한글》 146.
 김규철(1980), <한자어 단어 형성에 관한 연구>, 《국어연구》 41.
 김영석, 이상억(1992), 《현대형태론》, 학연사.

- 김창섭(1994), 《국어의 단어형성과 단어구조 연구》(국어학 총서 21), 태학사.
- 노명희(1990), <한자어의 어휘형태론적인 특성에 관한 연구>, 《국어연구》 95.
- _____ (1997), <한자어 형태론>, 《국어학》 29.
- 배양서(1970), <한국 외래어에 관한 서설>, 《한글》 146.
- 송기중(1985), <현대국어 한자어 형태론>, 《형태》(국어학 총서 18), 태학사.
- 송철의(1988), <파생어 형성에 있어서 제약 현상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99.
- _____ (1992), 《국어의 파생어 형성 연구》, 태학사.
- 심재기(1982), 《국어 어휘론》, 집문당.
- _____ (1987), <한자어의 구조와 그 조어력>, 《국어 생활》 8.
- _____ (1995), <숨어 있던 복합어에 대하여>, 《우리말 연구의 샘터》(연산 도수희 선생 화갑 기념 논총), 간행위원회.
- 이익섭(1968), <한자어 조어법의 유형>, 《이승녕 박사 송수 기념 논총》.
- 이익섭(1969), <한자어의 비밀음절 단일어에 대하여>, 《김재원 박사 화갑 기념 논총》.
- _____ (1975), <국어 조어론의 몇 문제>, 《동양학》 5, 단국대.
- 이익섭, 임홍빈(1983), 《국어 문법론》, 학연사.
- 유구상(1970), <외래어에 대하여>, 《한글》 146.
- 조남호(1988), <현대 국어의 파생접미사 연구-생산력이 높은 접미사를 중심으로->, 《국어연구》 85.
- 국립국어연구원(1993), 《국어 어휘 분류 목록에 대한 연구》.
- _____ (1994), 《신어의 조사 연구》.
- _____ (1995), 《신어 목록》.
- Aronoff, M.(1976), *Wordformation in generative grammar*, Cambridge(Mass), MIT Press.
- Bauer,L.(1983), *English word-form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calise,S.(1984), *Generative Morphology*, Dordrecht Foris Publications.